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광주 유치 기대감 높다

광주시 오늘 본점 방문 설명회…인프라·시민 열기·지점 연고 등 강조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표 면담 등 힘 보태…이병훈 의원 "확답 받았다"

광주시와 지역 체육계가 광주를 연고지로 한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힘을 합치고 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22일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확답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광주를 연고지로 한 여자배구단 창단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배구협회와 함께 23일 최근 7구단 참여가 결정된 페퍼저축은행 본점(경기 성남)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배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염주종합체육관과 보조구장 활용이 가능한 빛고을체육관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와 전주에 지점을 운영하는 점 등을 유치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맹과 기존 6개 구단이 배구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페퍼저축은행에 지방의 한 도시를 연고지로 검토하도록 권유하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유치 열기가 높은 점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4일 페퍼저축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 프로배구단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뜻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정순애 시의회 부의장, 전갑수 광주시 배구협회장,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으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협업을 통해 유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배구단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이날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가 배구 전용구장 등 인프라가 탄탄하고 천국 최고의 배구 열기를 가진 도시라는 점과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설명했고, 광주를 연고지로 할 계획임을 확답받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지난 20일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0일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연고지는 성남과 광주시를 후보지로 정하고 고심 중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연고지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 10월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탄생했으며, 인수 당시 1900억원이던 자산이 현재는 4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3위의 저축은행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무철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가 끝난 뒤,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승인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볼링 가수형·백종윤 태극마크

광주시청 박건하도 국가대표 선발
가수형, 누나 가윤미와 '남매 대표'

광양시청 볼링팀 가수형과 백종윤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21일 대한볼링협회에 따르면 가수형(32)은 13~20일 경북 구미복합스포츠센터 볼링경기장에서 열린 2021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게임 평균 238.0으로 남자부 4위에 올라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같은 팀 백종윤도 8게임 평균 232.6으로 합류했다.

가수형은 누나 가윤미(34)가 여자부 국가대표로 선발돼 '남매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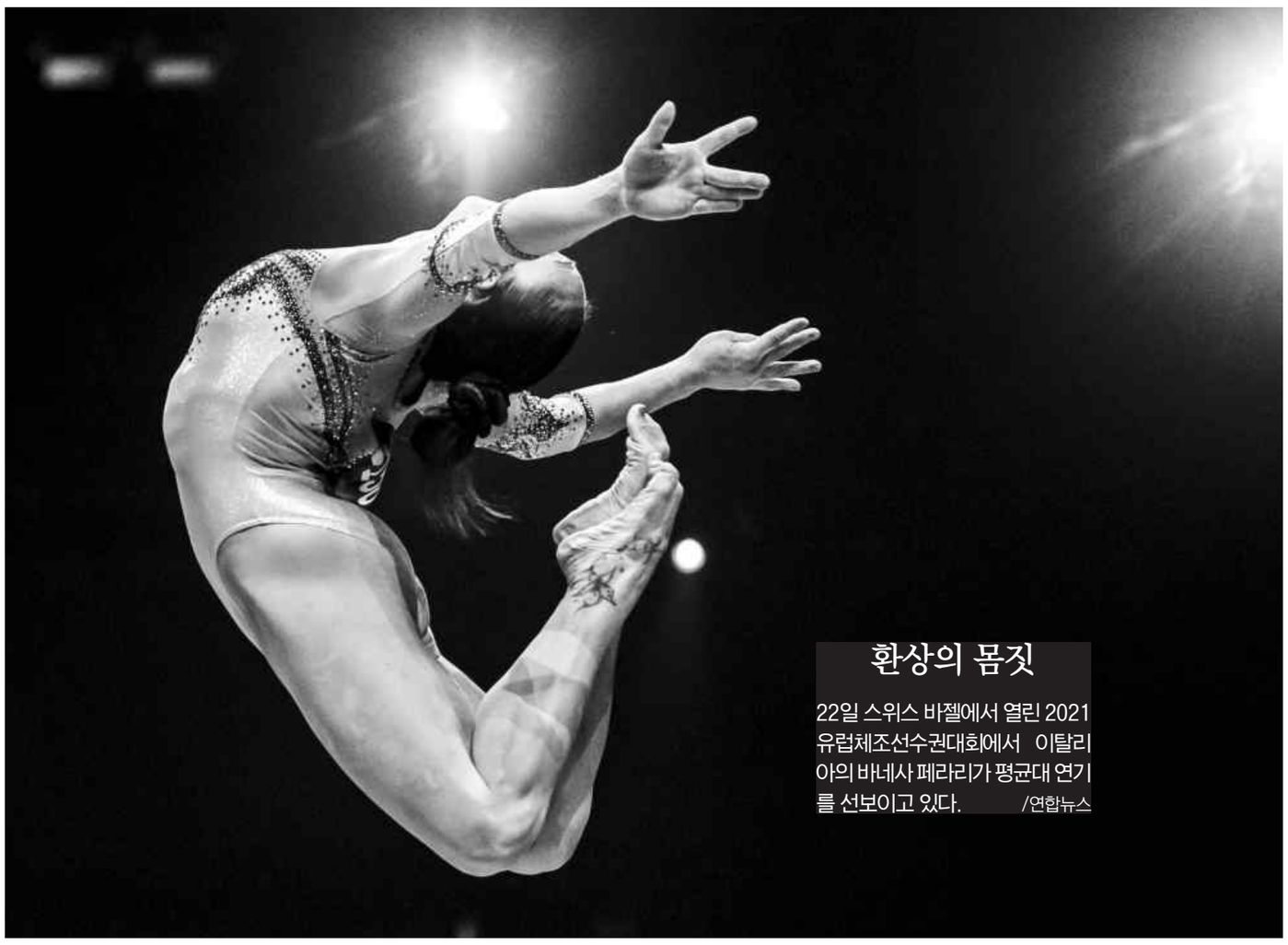
한편, 지근(부산광역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9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을 비롯해 출전한 5개 종목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던 지근은 고교를 졸업하고 실업 무대에 발을 내딛자마자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수형과 백종윤 외에 고재혁(경북도청), 강희원(울주군청), 박경록(한국체육대학교), 박건하(광주시청), 박상혁(한국체육대학교), 남자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여자부에선 백승자(서울시설공단), 김선정(서울시설공단), 가윤미(서울시설공단), 전예란(부평구청), 양수진(횡성군청), 장하은(용인시청), 김진주(구미시청), 정정윤(구미시청)이 뽑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환상의 몸짓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2021 유럽체조선수권대회에서 이탈리아의 바네사 페라리가 평균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격 간판' 진종오 도쿄올림픽 간다

9위→7위→2위로 국가대표 선발

진종오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42·서울시청)가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진종오는 이달 16일부터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진행 중인 2021 도쿄올림픽 대표 선발전 남자 10m 공기권총 부문에서 2위에 올라 도쿄행 티켓을 따냈다.

선발전 합산 점수 상위 두 명까지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진종오는 극적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차전에서 579점을 쏴 9위로 불안한 출발을 한 진종오는 4차전까지 7위(2313점)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22일 열린 마지막 5차전에서 585점을 쏘며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마지막 발을 10점 만점을 쏘며 극적으로 한승우(창원시청)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대한사격연맹 규정상 대표 선발전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국제대회에서 올림픽 쿼터를 획득한 선수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이에 따라 2018년 창원세계선수권대회에서 쿼터를 획득한 진종오가 올림픽에 나서게 됐다.

진종오와 함께 2908점으로 1위를 차지한 김모세(상무)가 도쿄로 향한다.

2004 아테네 올림픽 사격 남자 50m 권총 은메달을 시작으로 올림픽에서 총 6개의 메달(금 4·은 2)을 목에 건 진종오는 이제 5번째 올림픽에서 자신의 7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그의 주 종목인 남자 50m 권총이 폐지됐지만, 10m 공기권총도 승산이 있다.

진종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10m 공기권총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쿼터 2장이 걸린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는 권은지(울진군청·3162.9점)와 박희문(우리은행·3141.4점)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이번 선발전은 30일까지 열리며 올림픽 쿼터 14장의 주인공이 모두 가려진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공모사업 63억여원 실적

종합형스포츠클럽·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 선정

전남도체육회가 6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공모사업 실적을 거뒀다.

2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한종목 스포츠클럽 3개(15억원), 종합형 스포츠클럽(1개, 6억원), 신나는주말체육학교(416개, 21억5000여만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1억 6000만원) 등에서 63억5560여만원(4월15일 기준)의 실적을 올렸다.

이 금액은 대한체육회 등에서 공모와 심사를 거쳐 도체육회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군체육회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2억5000여만원을 비롯하여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전문선수반)으로 6억2500만원을, 학교시설개방지원사업(34개)으로 8억5500여만원을, 청소년스포츠한마당(종목)으로 8400여만원을 확보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사업으로 2295만원을, 해달맞이체조교실(16개소, 전국 4위)로 9470만원을, 스포츠푸드트럭(7곳)으로 530여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전문체육 부문에서는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정받아 초·중·고교 운동부에 지원한다.

도체육회는 4, 5월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리그, 또바기체육돌봄지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유아체육활동지원사업,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사업, 체육청년 첫걸음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앞두고 있어 공모사업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무 회장은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도민이 최고의 환경에서 운동을 즐기고, 건강과 함께 경쟁력 또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체육회는 2018년 64억여원, 2019년 42억원 여원의 공모 실적에 이어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본격화된 지난해 71억1800여만원의 공모사업 성과를 올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복
2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최면
3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4관	어른들은 몰라요
5관	서복
6관	내일의 기억
9관	내일의 기억
7관 씨네커플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고질라 VS. 콩, 노바디, 플립
8관 씨네커플	미나리, 자산어보, 어른들은 몰라요, 스프링 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1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